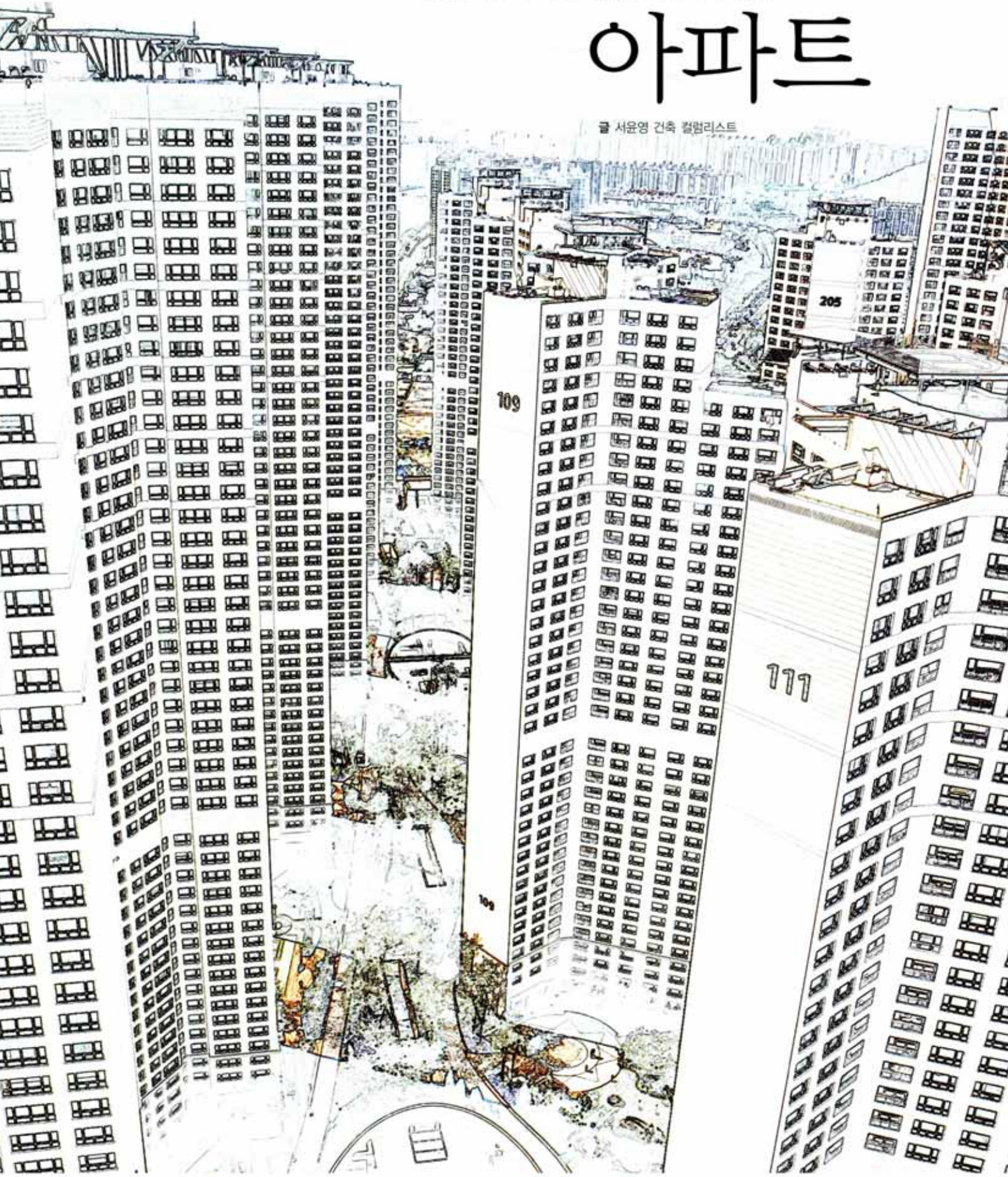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진정한 커뮤니티 공간

아파트

글 서윤영 건축 컬럼리스트



사람들은 대개 세대별로 주요 관심사가 따로 있게 마련인데, 10대의 관심사가 공부와 대학이라면 20대는 군대와 취직 등이고 30대가 결혼과 '내 집 마련' 이라면 40대는 그 집을 넓혀가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30~40대가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 집 이야기가 빠지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주된 화제다. 1970년대 가수 윤수일이 '아파트' 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지금도 노래방과 술자리는 물론 조기 축구회와 야유회에서 애창될 만큼 우리는 아파트를 노래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어원은 대체 무엇일까?

아파트는 아파트먼트(Apartment)의 줄임말이니 그 기원도 미국이나 영국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프랑스어인 아파르트망(Appartement)이 그 어원이다. 지금의 집은 거실, 주방, 욕실, 서재, 안방, 아이들 방처럼 여러 개의 방들로 나뉘어 있지만, 중세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개의 방들로 나뉘어 있지 않았다. 대개 큰 홀이 하나 있고 가운데 커다란 무쇠 난로가 있어서 낮에는 거실로 사용하다가 밤이 되면 각자 개인 침대에서 잠을 자는 형태였는데, 부엌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부유한 집이 아닌 이상 거실 가운데 놓인 난로에서 수프를 끓이고 기도 구웠다. 그러다가 17세기 프랑스의 대저택에서 방들이 점차 용도별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요즘의 집은 취침과 식사, 휴식 그리고 가족의 놀이만 일어나지만 당시 프랑스의 저택은 손님 초대가 빈번해 집을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때문에 개인 휴식과 가족 놀이 및 손님 접대가 일어나는 공간을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그중에는 갤러리-서재-용접실-대식당으로 이뤄져 가장이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련의 방들도 있었고, 규방(閨房)-살롱-음악실-식당으로 이뤄져 안주인이 친척이나 친한 여자 손님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있었으며, 침실-화장실-드레스룸 등 혼자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끼리 모이는 방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몇 개의 방들로 이루어진 공간은 각각 아파르트망 드 파라드(Appartement de Parade, 파시적인 접대 장소), 아파르트망 드 소시에테(Appartement de Societe, 친밀한 사교의 장소), 아파르트망 드 코모디테(Appartement de Commodite, 안락한 휴식의 장소) 등으로 불렸다. 즉 '아파르트망' 은 대규모 저택에서 손님 초대나 가족 놀이, 개인 휴식 등의 용도를 위해 별도로 구획된 몇 개의 방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19세기에 파리가 점차 도시화되면서 핵가족과 독신자가 증가하자 과거와 같은 대저택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본디 마당이 딸린 한옥이었던 곳이 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대신 그 자리엔 3~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듯이, 당시 파리의 대저택들은 각 아파르트망별로 잘게 잘라 세를 주게 되면서 지금의 아파트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아파르트망이란 대저택에서 잘게 세분되어 나간 부분(a-part-ment)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먼트, 곧 단위 세대들은 아파트 건물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쿵쾅거리고 뛰어다니면 아랫집이 피해를 본다. 아랫집에서 생선이나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윗집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처럼 아파트는 아래위, 이웃 세대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공동주택' 이다. 공동주택이란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화단, 테니스장, 방법시설 등을 공유하며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한다. 외국에서 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이유는 층층이 높이 짓는 집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놀이터, 정원, 주차장, 경비실 등을 모두 한 집에서 마련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33평형 아파트에서 현관문 안쪽의 전용면적은 25평 정도이고 나머지 8평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화단 등의 공용면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공용면적을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33평에 포함된 8평의 공용면적도 분명 내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공간이지만, 그곳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집 안에는 실크 벽지에 원목 바닥재를 비롯해 온갖 인테리어로 치장해놓고도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순간 아무도 복도에 떨어진 휴지 한 장 줍지 않는다. 집 안에서는 매일 쓸고 닦는 것도 모자라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지만, 이중 삼중의 잠금 장치로 굳게 닫힌 욕중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가 아무리 더러워도 비질 한 번 하는 일이 없다. 아파트는 그 특성상 이웃 세대끼리 벽과 벽을 공유하며, 아래 위로 바닥과 천장을 서로 공유한다. 5000년 역사 이래 이렇듯 이웃집과 바로 붙어 살기도 아파트가 처음이지만, 그 이웃과 서로 모른 채하며 살기도 아파트가 처음일 것이다.

'아파르트망 드 파라드' 이든 '아파르트망 드 코모디테' 이든 그것이 본디 대저택의 일부분이었지 처음부터 별개로 구획된 공간이 아니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801호, 802호, 803호는 서로 다른 구슬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실에 꿰어 만든 목걸이 같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데 붙어 있었던 것을 a-part 로 잘게 조각내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와 엘리베이터, 놀이터, 화단을 공유하는 것이며,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아파트 마당에 대형 TV를 갖다 놓고 주인이 모두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응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 응원의 마당에 아파트 주민만이 아닌, 이웃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원룸, 빌라의 식구들도 모두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정식 명칭은 공동주택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진정한 의미의 공동주택이 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을 쓰신 서윤영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와 동 대학원 수학과, 명지대 건축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무명건축에서 근무하다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ekazzang@hanmail.net